

올겨울 평년보다 덜 춥고 포근

고기압 흐름 높은 온도 유지 얇은 기습한파는 주의해야 눈은 12월·2월에 집중될 듯

올 겨울은 대체로 따뜻하고, 간혹 기습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눈은 12월과 내년 2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겨울기상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 올해 겨울(12월~내년 2월) 기온은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하지 않아 평년(1981~2010년 평균)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따뜻하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기습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3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대기 상층에 온난한 고기압성 흐름과 기온 상승을 유도

해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 겨울은 때때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한파'가 예상되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북극해 얼음 면적이 평년보다 적어 일시적인 한파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월별로 보면 12월 기온은 평년(3.4~4.4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가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다. 강수량은 평년(16.1~32.2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고, 간혹 폭설도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내년 1월 기온도 평년(1.0~2.0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강수량은 평년

(19.4~36.4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내년 2월 초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다가,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2.3~3.7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월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년(30.2~50.2mm)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10년(2009년~2018년)간 광주·전남 겨울철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2.6도로 평년(2.8도)보다 0.2도 낮았고, 강수량은 115.4mm로 평년(86.7~112.9mm)보다 많았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25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타세쿼이아길의 막바지 가을 따뜻한 날씨를 보인 24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로수 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일 지휘계통·교신내용 면밀 분석

언어를 해경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과 공조 추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참사 당일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목포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은 23일에도 인천 해경 본청에 대

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전날 확보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출범 이후 벌인 첫 강제수사로, 해경 본청 상황실과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3009호의 항박 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도 확보했다.

/연철뉴스

특수단이 언급한 '교신기록'은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주체들이 서로 교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특수단은 국방부 검찰단과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자료 협조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특수단은 큰 군사 파견 등 인력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파견 요청도 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참고인 소환 일정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철뉴스

광주 남구 직장갑질 동장 대기발령 조사 결과파라 市에 징계 요구

몸이 아프다는 여직원에게 "오늘이 그 날이라 아프냐"며 수 차례에 걸쳐 수지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광주시 남구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4일 광주시 남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구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동장(5급)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과 여성가족과 등은 A동장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 관련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남구는 A동장의 갑질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광주시에 있다.

하지만, 남구 노조는 A동장에 대한 갑질 및 성희롱 조사부터 광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구의 조직 구조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안영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장은 "남구청은 인력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환경"이라며 "최근 구청장에게 남구가 아닌

광주시여성인권보호관에 이번 사건을 의뢰해 진상파악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광주시에 진상파악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아파서 쉬는 게 아니지?", "남자들은 못 쉬는데 여성들 보건 휴가와 돌봄 휴가를 쓴다" 등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을 한 A동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장 채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리세요

광주 서구 매주 화요일 수거

김장을 하다 남은 야채 등 채소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다.

광주시 서구는 24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수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거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수거 대상은 배추, 무 등을 다듬고 난 음식물쓰레기다. 배출방법은 부피가 큰 야채 등을 가급적 작게 절단해 밤 9시부터 새벽 5시

까지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기간내 매주 화요일만 배출이 가능하고 기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없다.

윤근석 서구청 자원순환팀장은 "김장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김장쓰레기 처리가 원활하도록 주민들께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 수갑·포승 등 장비사용 금지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겐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24일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했다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6 달뜨기 05:19
해질 17:22 달짐 16:37

성큼 다가온 '동장군'

구름 많고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4/8	보성	구름 많음	3/7
목포	구름 많음	5/7	순천	구름 많음	5/12
여수	구름 많음	7/11	영광	구름 많음	2/7
나주	구름 많음	2/8	진도	구름 많음	6/9
완도	구름 많음	6/9	전주	구름 많음	2/6
구례	구름 많음	3/10	군산	구름 많음	2/6
강진	구름 많음	6/8	남원	구름 많음	1/8
해남	구름 많음	5/8	흑산도	구름 많음	7/8
장성	구름 많음	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북동	1.5~3.0
남부	면바다(서)	북서~북	3.0~5.0	북~북동	2.0~4.0
	면바다(동)	북서~북	3.0~5.0	북~북동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1.0~2.5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면바다(동)	북서~북	1.5~3.0	북~북동	2.0~4.0

◇ 물때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6:01		00:34	
	18:32		13:12	
여수	01:32		08:07	
	14:06		20:12	

◇ 주간 날씨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12/1(일)	2(월)
날씨	☁	☁	☁	☀	☁	☁	☁
날짜	4/15	4/12	3/13	2/13	2/14	5/12	4/9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우리쌀 저장·저염 프로젝트'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위탁운영 중인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10일 동안 지역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저장·저염 가래떡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우리 쌀의 소중함과 중요성, 저장·저염 식습관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요리 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35곳이 참여했다.

현미가래떡을 이용해 만든 저장·저염 음식을 심사해 총 10개를 선정, 시상했다. 대상은 '가래떡 샐러드'를 만든 전남 나주 송현어린이집이 차지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내년 1월 전남지역 242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식단에 '가래떡 샐러드'를 포함시켜 우리 농산물 이용과 저장·저염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노희경 센터장은 "전남지역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예약문의 062-226-0011